

국제유가 강세 언제까지 이어지나...

4월 들어 사상 최고치 3번 갱신 ... 미국 휘발유 재고 줄어 공급차질

두바이(Dubai)유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원유도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동향을 대표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4월11일 배럴당 63.63달러를 기록하는 등 4월에 접어들어 무려 3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북해산 Brent유도 2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WTI(서부텍사스 중질유)도 2005년 8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국제유가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강세는 이란 핵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한데다 나이지리아의 원유공급 차질 등으로 석유수급이 타이트해져 약간의 공급차질만 빚어져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 핵문제가 심리적으로 석유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반군 문제로 인한 4월1일 56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공급차질이 2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실제로 원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계 석유제품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미국에서 최근 3주간 휘발유 재고가 1000만배럴이 줄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석유제품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국제유가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유가가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4월11일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등 국제유가 전망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28일 이란에 향후 30일안에 모든 핵활동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의 향방이 가려질 5월초가 국제유가의 초강세 현상 지속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란 핵문제가 이란에 대한 제재로 결론이 도출돼 세계 원유공급의 8% 가량을 차지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 원유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들어오는 한국은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공사 구자권 해외조사팀장은 “당분간 국제유가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란 핵문제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불안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선에서 안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석유 전문가들은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등 석유시장의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2006년 유가전망을 최근 잇따라 상향조정했다.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는 2005년 말 배럴당 52.40달러로 제시했던 2006년 유가전망(Brent유 기준)을 3월 60.30달러로 8달러 가까이 상향조정했고 석유공사도 3월 두바이유 기준 2006년 유가전망을 배럴당 57.50달러로 당초보다 4.50달러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3>